



봉우 컬럼

비교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잘 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쉬울까? 쉽기로 말하자면 물질이든 마음이든 써가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손바닥 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에는 선뜻 마음을 열지만, 남이 잘 될 때 박수치는 것에는 많이 인색하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나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죽어도 못 보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란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왜 시기하게 될까? 그것은 비교사상 때문이다. 상대적 행복을 따지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것이 내 자체 삶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보다 나은 삶이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기기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 삶을 남의 삶에 비교하지 않는 자다. 내가 비록 명품 옷이나 가방을 못 들어도,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내 삶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비교하려거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그것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강력한 힘이 되나 남과 비교하면 시기와 열등감만 생기게 된다. 남이 잘 되면 크게 박수칠 줄 아는 여유로운 자가 되자. 그래야 내가 잘 될 때 남이 진심으로 나에게 박수를 쳐줄 것이다.

하늘과 땅을 웃게 하려면?

‘하늘과 땅을 웃게 하려면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다.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이웃의 대명사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즉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누차 말하듯이 진실된 마음이란 곧 배려와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과 인천에서는 뜻있는 장로들이 후원하고, 교역자, 성도들은 물론 교회 직원과 청년대학생 및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연탄과 쌀을 전달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구룡 마을과 부천 소사구 계수동 산티발 동네에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겨울을

정말 싱그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요, 그날에 받을 상을 아는 자들만이 아는 기쁨이요 행복이기에 그렇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자. 여기에는 믿는 자 중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설 양일까? 주린 자에게 먹이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 자라는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설 염소는 주린 자를 보고 도 못 본 체 하고, 벗은 자를 두고 자기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전13:2). 이방인 고넬료와 과부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해서 받은 축복은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불우한 이웃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참된 경건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팔자로 폄 나게 걷는 게 아니다. 참된 경건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돕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날씬해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다. 세



흠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느니라(사랑의 연탄 나르기 2015. 11. 21)

따뜻하게 날 수 있게 연탄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총회장 목사님의 당부로 당초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목사님이 “선은 아무리 작아도 미루면 죄다. 내가 해외집회 가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서울은 물론 인천에서도 참가자 전원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릴레이로 줄을 서서 연탄을 나랐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칠해지는 줄도 모른 채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봉사하는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잘 입은 자이며, 목마른 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저만 목을 축인 자다. 곧 구제하지 않은 자,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은 자가 염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는 자리싸움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을 빌자면 부자로 죽은 자들은 영벌에, 부자로 산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다. 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상은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따뜻한 손길, 나누는 마음이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누군가가 힘을 낸다면, 당신이 나누는 마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당신의 삶을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잠11:25).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개미부대를 추억하며 연탄을 나랐다



젊은이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였다



연탄과 함께 쌀도 전달하였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2:14~3:14)

‘왜’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왜’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왜 주를 앙모하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답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요일3:8).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멸망, 병, 저주, 가난의 배후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의 발에 떨어뜨려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입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 배고프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시험도 받게 하시고 마침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장래 일을 알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죽음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내일이면 36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떠나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명령하신 복음증거

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렘33:3). 며칠 전 저는 천분이 있는 한 목사님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쓰러지자 사모님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데굴데굴 구르며 애통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가다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영혼이 돌아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의 믿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기도했기에 반드시 제가 찾아와 자신에게 안수하여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제가 바쁜 일정 중에도 꼭 그 목사님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 결국 늦은 밤, 병원을 찾아 귀신을 쫓고 안수하며 그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장로가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사인 아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깨끗함을 받고 돌아와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 높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유언을 통해 “세상의 성공을 모두 얻었지만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었다. 나는 어리석었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아파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표적으로 성령까지 받았으니 ‘앙모(仰慕)’라는 한자의 뜻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듯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공짜

에는 독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공사애이 익이 많고 고생해서 낳은 자식이 더 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상대에게 공짜를 주면 이는 상대를 폐인으로 만드는 것임을 잘 아시기에 두드려야 열어주시고 ‘왜’라는 안경을 끼고 찾아야 찾을 수 있게 만드셔서 고난의 훈련으로 정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정직에 배려를 더한 것입니다. 단순한 정직은 상대를 정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배려(配慮), 즉 아내처럼, 짝처럼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사역도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진실에서 시작되는 구제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별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씀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베드로를 통해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과부 다비다가 구제에 힘쓰다 죽자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진실된 구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찬송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사43:21)고 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손주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재롱을 부릴 때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88명의 성가대원을 구성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질 만큼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

빨간 안경을 쓰면 모두 빨강게 보인다

을 비난하는 아내 미갈에게도 나같이 비천한 목동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족보를 통해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문밧장을 견고히, 즉 육체에 귀신이 들어와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를 보고 배운 너의 자녀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시147:13)고 말씀하셨으며, 네 경내, 즉 모든 사업과 만사가 평안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므로 이 땅의 축복은 물론이요 천국의 왕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사람, 지식,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왜’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의 해답을 찾을시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경만 바꾸어 써도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의 사명을 다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마6:33)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어떤 부족함도 없이 전 세계에 이름을 높여주신 제 삶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문자답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반대로 돈, 명예, 아내, 자녀를 우선순위에 놓고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사는 자에게 성경 속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당신의 선택은?

“어머니 뱃속에서 고고의 울음을 터트리며 세상에 나온 후 우리 인생은 선택, 선택의 연속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주 쓰시는 표현이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은 당장 선택의 기로에 서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는 게 다반사 아닌가? 이런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선택은 우리 일상이다.

그런데 이 선택에 관해 역사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한마디로 줄 잘 못 서서 패가망신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결단 난 역사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은 사실상 대륙의 주인이었다.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남아메리카 대륙이 사실상 스페인의 영향권 아래 놓이자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초기 패권은 프랑스의 전력이 우세하여 저울추가 프랑스 쪽으로 기울는 듯했다. 현지 인디언 부족 대부분도 프랑스와 제휴하여 영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듯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그 대가로 인디언은 영국군대에 의해 참혹한 살육을 당하게 된다.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도 그 결과가 참혹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미국 독립전쟁에 인디언은 또다시 패착을 둔다. 이번에는 영국 편에 선 것이다. 전투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웅망한 인디언이었지만, 전략에서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

암아 영국에, 또 미국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지금은 역사의 변방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가 나눠주는 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처지다. 심지어 정부가 조성한 인디언 타운에서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으니 땅을 치고 후회해본들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멀리 미 대륙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한반도를 양분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초기 선택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 약자는 강자 옆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

성경은 말씀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다. 그분만이 당신을 영생으로 데려갈 분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하나님이라는 목적지

옛날에는 오직 목적지까지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지역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이 있더라도 지리를 알지 못하면 도로표지판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차에는 방향을 알기 위한 지도가 항상 하나씩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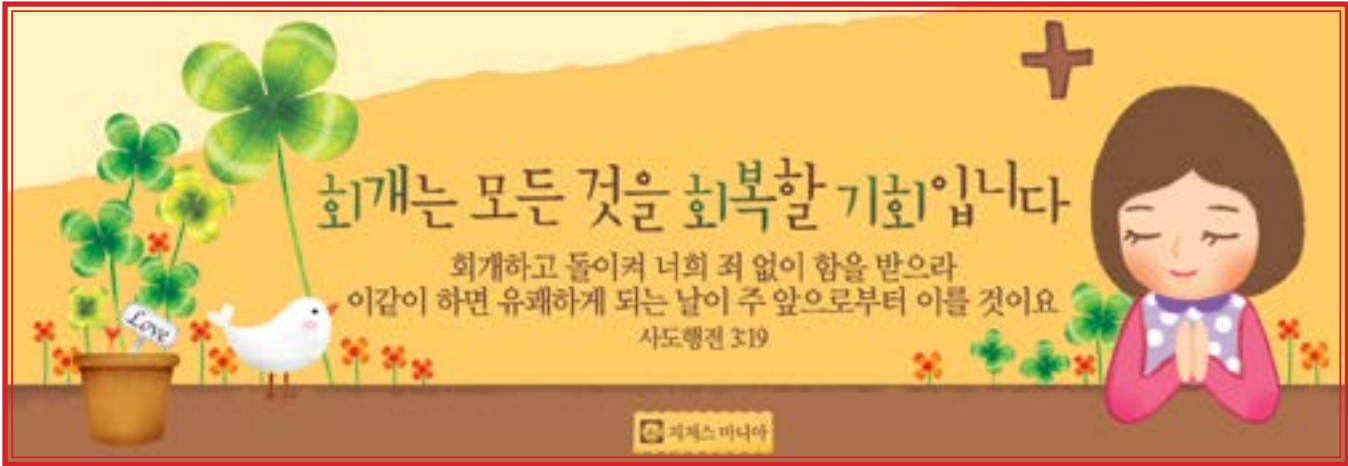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은 차 안에 지도가 없다. 두 겹고 큰 지도 대신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차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었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더 이상 예전처럼 길을 잃었을 때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워놓고 현재 위치와 목적지 방향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항상 목적지까지 이르는 길을 표시해주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이 보급된 후로,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목적지만 입력하고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잠시 헛갈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던 정해

진 길에서 이탈한다고 해도 운전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계속 알려주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가슴속에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입력한다면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 길대로 가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여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 실족한다고 해도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항상 존재한다.

길은 모든 곳에 걸쳐 나 있고 모든 곳이 서로 통하듯, 각자의 위치가 서로 달라도 모든 길은 서로 이어져 있다. 가슴속 깊이 있는 영혼에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서 서로 만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생명의 말씀::

::귀를 기울이세요::

건강이 행복이요 축복이다

나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몸무게가 점점 줄고 결국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쓰러져 한동안 정신 줄을 놓은 적이 있었다. 어디선가 기도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집사람이었다. 정신을 차린 후 예배를 마치고 왜 그랬을까 염려하면서 한 달쯤 지났을까? 심방을 가서 예배드리다 또 쓰러졌다. 그 때 나는 건강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두 번을 쓰러진 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며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는 중에 “마음에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는 말씀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왜 아팠었는지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이유만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해결책도 알려주셨다.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마6:34). 그렇다. 나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었고 그것이 뼈를 썩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썩은 뼈를 치료하는 약도 있을 것이라 믿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

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4) 하시는 것이다. 찾아보니 뼈는 칼슘, 인, 미네랄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피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한다. 또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개의 적혈구를 생산하고, 그 생명은 120일 간다고 한다. 그러니 뼈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근심과 염려에 놓여있을 때 내 뼈는 썩어가고, 기빠하고 남에게 선한 말을 할 때 썩은 뼈에 양약이 되어 살아난다는 것을 두 번 쓰러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비싼 값을 치른 것이다.

이제 마음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시기는 마음에서 되출시키자. 그리고 즐거움과 선한 말을 영입하여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약을 주자. 사도 바울도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다. 나는 쓰러지기 전까지 염려의 달인이 아니었나 싶다. 이제는 기쁨의 달인이 되려고 기도하며 노력한다. 불행을 카운트 하지 않고 행복을 카운트 할 것이며, 물이 반 컵밖에 없는 것 아니라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았다는 마인드로 살 것이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주님 외에는 아웃포커싱!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 IS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 130명이 사망했다. 테러 직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격을 당했다’고 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경을 폐쇄했다고 한다. 이후 IS는 이탈리아의 로마, 미국의 워싱턴 등을 다음 테러 타깃으로 지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실제 프랑스 테러전인 지난 10월 31일, 이집트 공항을 떠난 러시아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 탑승객 224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이런 사건들 이후 시민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 심리는 커지고 있다.

이 순간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야한다’고 하시며 우루과이 집회를 위해 선교길에 오르셨다. 목사님도 당연히 테러가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목표인 복음전파 앞에 다른 환경들은 단순히 배경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종종 ‘아웃포커싱(Out Focusing)’이라는 기술을 사용

한다. 이는 인물촬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인물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하는 포커스아웃기법이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가 훨씬 더 돋보이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주님 이외의 문제는 배경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아웃포커싱 해버리셨다. 우리도 총회장 목사님처럼 현실의 문제들을 흐릿하게 지우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독교 인구는 갈수록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슬람교는 100년 동안 2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 순간 IS의 무차별 테러로 인해 반 이슬람 정서를 가질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에도 복음의 물결이 전파되고, 무슬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한다. 지난 수요일, 시리아 난민 200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일단 시작부터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일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미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저는 어느 광고 카피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에 멋진 일이란 없다.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 뿐.” 이 세상에 멋지고 즐거운 직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보이는 건,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멋지고 즐겁게 해냈기 때문이지요. 이제와 피겨스케이팅이 멋있어 보이는 건 김연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되게만 생각했던 해외 선교 사역이 멋있어 보이는 건 이초석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요. 일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일을 빛나게 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온라인 쇼핑몰 회장, 알리바바 마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20대라면 중소기업에서 일해보라. 대기업은 프로세스를 배우기엔 좋지만 큰 기계의 부품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꿈과 열정을 배우는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2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보다 어떤 상사를 따르느냐다.” 7년 전 한창 취업준비를 하던 저에게 선배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라는 거였습니

다. 그때 그 말이 야속하게 들리고 쉬운 조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라고. 고등학생 때부터 광고 만드는 일을 꿈꿔왔던 저는, 그 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의 크기가 상당했었습니다. 웬만한 회사에는 눈에 차지 않았지요.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길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작은 그보다 덜 크고 덜 유명한 회사였지요. 하지만 알리바바 마윈의 말처럼 그곳엔 훌륭한 팀장이 있었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제 능력을 키우고 보여줄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른 회사 동년차들보다 큰일을 맡아서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크던 작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크던 작던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 맡은 일을 하나 둘 멋지게 해낼 때 당신은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실력과 평판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을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부터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3:20).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우리아이 ADHD일까?

ADHD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인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산만하고 집중이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집중할 수 있고, 장난을 심하게 치더라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ADHD는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집중을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행동조절에 문제를 겪는 차이를 보인다.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이 더디기에 산만하고 집중이 약할 수 있으나, ADHD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미국 소아학회 통계에서는 3~8%로 보고 있으며, 남자아동이 여자아동에 비해서 3배수 정도 높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다면 ADHD의 핵심증상은 아래와 같다

(1) 주의력 부족
집중하지 못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함.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2) 과잉행동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님. 손이나

발을 계속 움직임. 말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함.

(3) 충동성
충동적인 행동을 잘하며 화를 잘 낸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든다. 아동 ADHD의 50%정도는 성인 ADHD로 이어지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조직생활 및 결혼생활 등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보이며, 알콜 중독이나 도박중독 등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성인의 경우 사회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체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권장한다. 한의학에서는 ADHD를 심장과 간의 흥분과 기능의 저하로 보고 아동의 증상에 맞게 석창포, 계피, 오미자, 산약, 당귀, 인삼 등으로 두뇌의 전두엽 발달을 돕는 치료를 한다. 단순히 산만하고 활발한 수준이 아니라면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른 개입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ADHD 또한 사람이 겪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결음, 한결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참된 깨달음::

같은 이유! 다른 결과!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이가 있어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한 환경이 너무 처절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포기하셨나요?” 그 이유를 묻자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성공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의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실패한 사람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연연하

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국 뜻한 바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가며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황을 들이대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합리화에 성공한다 해도 결단코 자신의 인생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은 환경이라는 공간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세요. 반드시 길이 보이고, 돕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눅 21:14).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지 10년 만에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학공식을 통해서 도출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상대성이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를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적인 이론들은 서로 견해

가 다를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더 발전된 이론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여 가장 쉬운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이초석 목사 우루과이 집회

2015. 11. 23(월)~12. 4(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의 바른 행동은
고귀한 성품의
최종적인 완성의 꽃이며
남과 화목함의 으뜸이다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곳에
예절의 음식을 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